

2012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2013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02 2277 1683

팩스 02 2277 1684/1697

www.eai.or.kr

eai@eai.or.kr

이 사 장

하영선

이 사

강은모	강찬수	공유식	김동건	김병표
김세원	김 준	김진현	민선식	박경수
박상용	박진원	박찬근	선승훈	신동원
여동찬	유창수	임현진	장대환	조상호
홍석현				

감 사

장동우

원 장

이숙중

센터소장

손 열 이내영 전재성 조동호 한석희

JEAS 편집주간

스테판 해거드

연 구 원

김양규	박미영	배진석	백혜영	서희정
신영환	안현정	정원칠	정한울	최은혜
카일	케슬리			

이사장 메시지



하명선 EAI 이사장

국내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 속에서 10년의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 명품 싱크탱크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삶터인 동아시아는 본격적 신질서 재건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의 경쟁과 협력이 어우러지는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도 최선의 삶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합니다. EAI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한 해 동안 중견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거주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그리느라고 바빴습니다. 동시에 세계의 동아시아 정보를 단순히 수신하는 문지기가 아니라 신동아시아 설계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결실로서 EAI는 지구상의 6천 개가 넘는 싱크탱크들 중에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신흥 연구소로 전세계 지성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3대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경색된 상황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리

더십이 재정비되는 동시적 변화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대결이 좀처럼 위 기국면을 타파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속에서 EAI는 북한의 경제-비핵안보 병진노선 2.0과 동아시아평화번영구상 2.0을 결합한 한국의 신대북정책안을 준비하여 관련 당사국들의 신정책 마련에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국 한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신질서 재건축이라는 문명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겪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국내질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EAI는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비교 연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륜이 쌓인 여론분석팀의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갈고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명품을 지향하는 작은 거인 EAI가 지난 한 해 동안 벅찬 일들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눈에 띄지 않게 연구원을 아껴주시는 후원자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EAI의 작업에 흔쾌하게 동참해서 지적 공동체를 이루어주시는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숙중 원장이 이끄는 EAI 사람들의 숨은 노력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원장 메시지

2012-2013년은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적 변화가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치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였고,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체제, 중국은 시진핑체제, 일본에서는 아베정권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도 오바마행정부 2기를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EAI의 연구활동도 활발했던 두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대표적인 시리즈인 총선과 대선 패배연구와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전략과 신대북정책 연구가 있었고, 외교정책 연구로는 한국외교 10대 과제, 중견국외교, 데탕트-탈냉전 동북아 외교전략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국내외 여론조사를 실시, 분석해 오던 여론연구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공헌 분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AI의 강점인 국제적 네트워킹도 더욱 강화되었던 두 해였습니다.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가 주관하는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에 한국을 대표해 참여함은 물론, 민주주의, 영사업무 등 특정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도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지원기관으로 아시아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국제회의의 주최 등 협력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일미래대화라는 포럼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어젠다에 관여도가 커지면서 연구원의 국제적 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인턴십과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에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리아프렌드십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주재 외신기자 공부모임인 프레스포럼, 대학원생의 작은 공부모임인 EAI 사랑방도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도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국책이든 민간이든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식과 정책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EAI를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지는 계속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EAI가 어떤 분야에 역량을 결집할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파해야 보다 임팩트를 가져오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을까, EAI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힘들이 모여 혁신의 행동으로 이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은 더욱 힘을 내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연구 및 교육사업을 펼쳐오기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을 보태주신 후원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이 조직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획과 실행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연구원 스태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AI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자 하오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숙중 EAI 원장



목차

EAI 2012-2013

외교안보

대전략에서 신정책으로

16

거버넌스

성공한 대통령, 지속가능한 신뢰사회 만들기

24

여론분석

민심과 만나는 정책

28

인재육성

한국에서 세계의 인재를 키우다

32

지식확산

세계를 향한 지식나눔

36

EAI 후원회

희망과 열정

40

EAI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

재정보고

2012-2013 프로젝트와 참여 전문가

2012-2013 EAI 보고서 목록

EAI 사람들

2013년 1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2012 Global

Go-To Think Tanks Report)에서 **EAI**는 전세계 **6,603**개 정책연구

기관 가운데 종합순위 **65**위를 차지했다. 국내 민간정책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

게 세계 **100**대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25**위,

정책지향연구 분야에서는 **49**위에 올랐다. ■ 한국경제가 발표한 국내 싱크탱크

순위에 따르면, EAI는 외교안보 분야 **5**위에 올랐다. ■ 지난 **10**년 동안 EAI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 전파와 정책 개발에 힘썼다. 국가안보패널, 지구넷21포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대통령의 성공조건,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BBC 월드서

비스폴, 글로브스캔 · EAI CSR 국제인식조사 등은 대표적인 장기 프로그램이다.

2012-2013년 두 해 동안 EAI는 총 **466**회의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 같은

기간 EAI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전문가는 **1,432**명에 달하며, 연구 결과를

묶어 **10**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121**편의 국문보고서를

비롯하여 **114**편의 영문 및 중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를 향한 지식 전파에

도 힘쓰고 있다. ■ **154,060**여 명이 EAI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페

이지 뷰도 **794,100**회를 상회한다. ■ EAI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

식을 생산하여 언론을 통해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언론은 총 **666**회 EAI의 연구성과를 보도하였으며, 해외 유수의 언론들

또한 **83**회 보도하였다. ■ **EAI**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

로 지식의 개발, 전파,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13년 11월 18일 현재)

1월



스마트토크

- 하버드대 제고르즈 에커트 교수 초청 “Two Decades of Transform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월 9일) [PHOTO](#)
- 전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 방어프로그램 국장 우지 루빈 외 초청 “Israel’s Current National Security Issues” (1월 17일)

인프라비전

-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초청 “안보정세 변화와 국방 개혁의 당위성” (1월 27일)

2월



EAI 정책발표

-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 정상회의” 컨퍼런스 (2월 13일)

지구넷21포럼

-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한미FTA 개방과 경쟁을 위한 도약” (2월 14일) [PHOTO](#)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윤여준 전 장관 초청 “대통령의 자격, 스테이트 크래프트” (2월 22일)

SNS 생방송

- “미중경쟁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외교” (2월 28일)

3월



CoC 창립 컨퍼런스

- 미국외교협회(CFR) 주관 세계 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창립 컨퍼런스, 한국의 창립멤버로 EAI 선정 (워싱턴 3월 12-13일)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김병준 전 부총리 초청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 (3월 22일)

EAI 정책발표

-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 원조 효과성을 위한 복합네트워킹” (3월 23일) [PHOTO](#)

국제컨퍼런스

- “Trilateral Dialogue on Assessment of Regional Policies of Middle Powers” (도쿄 3월 24일)

4월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이동관 전 대통령실 대변인 초청 “대통령의 성공조건, 정치 세력화가 관건이다” (4월 5일)

EAI 창립 10주년 대강연회

- 김지하 시인 초청 강연회 (4월 5일)

EAI 정책발표

-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C) 전 문가라운드업 “Does Kim Signal World Bank Changes?” 이숙중 원장 발표 (4월 18일)

스마트토크

- 로위연구소 국제안보전문가 로리 메드카프 초청 “Future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4월 26일) [PHOTO](#)

5월



통일준비 대토론회 (5월 3일)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초청 “시대적 소명과 정치리더십” (5월 11일)

스마트토크

- 브루킹스연구소 로버트 케이진 연구위원 초청 “The World America Made and Current Challenges in East Asia” (5월 22일)
- 미 벨퍼연구소 윌리엄 토비 연구위원 초청 “Stemming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Proliferation, Globally and in Northeast Asia” (5월 16일)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 유타주립대 카이 허 교수 “Decision Making During Crises: Prospect Theory and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after the Cold War” 전문가 세미나(5월 29일)

EAI 창립 10주년 대강연회

- 김우창 교수 초청강연회(5월 31일)

EAI 창립 10주년 기념식(5월 31일)

PHOTO

6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 보스턴대 토마스 버거 교수 “Navigating a Sea of Troubles: US Alliances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전문가 세미나 (6월 7일) PHOTO

스마트토크

- 미 의회조사국 마크 매닝 연구위원 초청 “A South Korean-Japanese Strategic Partnership: An Emerging Reality, or an American Fantasy?” (6월 14일)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초청 “경제민주화와 준비된 대통령” (6월 21일)

EAI 창립 10주년 대강연회

- 박지향 교수 초청강연회 (6월 21일)

EAI 정책발표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6월 27일)

7월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초청 “국정운영의 한계와 대통령 리더십” (7월 12일)
- 성경룡 전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대통령의 성공조건 : 경험과 교훈” (7월 27일)

스마트토크

- 대만국립정치대 루예청 교수 초청 “G2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Region” (7월 13일)

지구넷21포럼

- 성 김 주한미대사 초청 “ROK - US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7월 17일) PHOTO

8월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초청 “준비된 대통령과 성공적 리더십의 조건” (8월 9일)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 “변환하는 세계질서 : 가치, 제도, 거버넌스의 새로운 기준” (8월 14일)

제4회 인턴홈커밍데이(8월 14일)

PHOTO

9월



2012 사회과학대강좌

-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 : 천하에서 복합까지”
(9월 20일) [PHOTO](#)

10월



스마트토크

- 해롤드 홍주 고 미 국무부 차관보 초청 “미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인권” (10월 12일) [PHOTO](#)

EAI 넷칼 펠로우 토론회

- 레이몬드 리베라 외 초청 리더십 토론회 (10월 12일)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 호주국립대 피터 반 네스 교수 초청 “Collapse of Moral Authority: A Comparison of Two Cases, Mao’s China and George W. Bush’s United States” (10월 22일)

국제컨퍼런스

- “Trilateral Dialogue: Taipei-Tokyo-Seoul” (10월 29일)
- 세계 싱크탱크평의회(CoC) 제 1회 지역총회 “Asia at the Crossroads: Regional Priorities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싱가포르 10월 30-31일)

EAI 정책발표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한 공진의 남북경협전략” (10월 29일)

11월



국제컨퍼런스

- EAI · CSIS 공동 “U.S.-ROK Cooperation for Global Nuclear Governance”
(워싱턴 11월 16일) [PHOTO](#)

12월



EAI-채널A 특집 토론회

- “대통령의 성공조건”
(12월 1일)

EAI 정책발표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12월 3일) [PHOTO](#)

스마트토크

- CIGI 데이비드 웰치 소장, 위털루 대 이승혁 교수 초청 “Island Disputes and the ‘Democrat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12월 20일)

1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 코네티컷대 유 정 교수
“When World’s Workshop Meets Its Office: Comparative Advantage, Institutions, and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India” 전문가 세미나 (1월 8일)

EAI 정책발표

-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월 15일) [PHOTO](#)

EAI 세미나

-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초청 EAI 인턴세미나 (1월 28일)

2월



EAI 정책발표

-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C) 전문가라운드업 “Global Advice for Obama’s Second Term”, 전 재성 소장 발표 (2월 7일) [PHOTO](#)

3월



EAI 사랑방

- 현대세계정치학 강의 (3월 8일)

국제컨퍼런스

-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C) 제2회 연례총회, 손열 소장 발표 (워싱턴 3월 10-12일)

스마트토크

- 미국외교협회(CFR)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초청
“60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U.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3월 18일)

국내컨퍼런스

- EAI, 한국정당학회, 이화여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 공동 “한국 정당정치 신뢰의 위기와 성찰, 그리고 진화” 학술회의 (3월 29일) [PHOTO](#)

4월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 데이비드 채터슨 주한캐나다 대사 초청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 방향에 대한 제언” (4월 3일)

EAI 정책발표

- “한국의 FTA 2.0 신전략 제언” (4월 25일)

국제컨퍼런스

- 외교부 · EAI 공동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4월 29일) [PHOTO](#)

5월



EAI 정책발표

- 2013년 제1회 한일국민 상호 인식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도쿄 5월 8일)
- 주한미대사관 · EAI · 성균관대 공동 주최, 북한정책 컨퍼런스 (5월 21일)

스마트토크

- 미 NBR 아브라함 덴마크 부소장 초청 “The Future of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Asia: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5월 10일)

국제컨퍼런스

- 제1회 한일미래대화 (도쿄 5월 11일) PHOTO
- EAI · CSIS 공동 “Strengthening ROK-U.S. Strategic Cooperation: Nuclear Governance and the North Korean Problem” (워싱턴 5월 17일)

6월



스마트토크

- 미 국무부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 비확산담당 차관보 초청 “Global and Regional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6월 4일) PHOTO

KF-EAI 코리아프렌드십

- 노회찬 대표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개혁” (6월 18일)
- 이준석 대표 “새로운 세대, 그 육성” (6월 20일)
- 강원택 교수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 과제” (6월 25일)
- 강인선 부장 “원고지에서 스마트폰까지 한국 언론 : 지난 20년, 앞으로의 20년” (6월 27일)

7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 웨스턴미시간대 유엔강 왕 교수 “Managing Hegemony in East Asia” 전문가 세미나(7월 2일)
- 보스턴대 민 예 교수 “China Invests Overseas” (7월 8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 김병국 고려대 교수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7월 2일) PHOTO
- 김윤희 아시아소사이터티 지부장 “문화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월 4일)
- 전재성 서울대 교수 “북한 문제와 한국의 외교전략” (7월 9일)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7월 11일)

스마트토크

- UC버클리대 비노드 아가왈 교수 초청 “U.S. Trade Linkages and a Comparison to EU Strategies” 토론회 (7월 11일)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인도대사 초청 “인도의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한국” (7월 15일)

8월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 “When is Conflict better than Cooperation?” (8월 8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8월 8일)
-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8월 8일)

제5회 인턴홈커밍데이 (8월 8일)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 에드문드 후지타 주한브라질 대사 초청 “브라질의 외교전략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제언” (8월 19일) PHOTO

대통령 국가안보자문위원회

- 하영선 이사장, 이숙중 원장 자문위원 위촉 (8월 27일)

9월



EAI 사랑방

-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9월 6일)

국제컨퍼런스

- EAI-CISAC 공동 “Future Direction for ROK-U.S. Nuclear Cooperation”
(9월 13일)
-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C) 제3차 지역총회 “Europe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이내영 소장, 이승주 교수 발표 (로마 9월 8-10일)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 윌리엄 패터슨 주한호주대사 초청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9월 26일) [PHOTO](#)

10월



EAI 정책발표

- EAI 신대북정책 컨퍼런스 “신대북정책 제안: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10월 21일)

지구넷21포럼

- 류길재 통일부장관 초청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토론회 (10월 8일) [PHOTO](#)

스마트토크

-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 글로벌안보프로그램 데이비드 웰치 소장, 캐나다 UBC 폴 에반스 교수 초청 “Confidence, Trust, and Empathy in Asia-Pacific Security Relations”
(10월 17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출범

- ADN 창립총회 개최
(10월 21-23일)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

- 호세 루이스 베르날 로드리게스 주한멕시코대사 초청 “멕시코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10월 31일)

11월



EAI 전문가세미나

- 로버트 러스킨 텍사스-오스틴대 교수 “Deliberation and Its Effects: The View from Deliberative Polling”
(11월 14일)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ADN)

- 아시아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DRN) 창립총회 및 워크숍
(11월 25-26일) [PHOTO](#)

12월



KF-EAI 코리아프렌드십

- 갈라 및 졸업식
(12월 2일) [PHOTO](#)

EAI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 (12월 10일)

대전략에서 신정책으로



2013년 10월 21일

EAI 신대북정책 컨퍼런스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2012-2013년도는 EAI 외교안보연구의 전환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기다. EAI는 2002년 창립 이래 진행해온 외교안보대전략 연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외교과제에 대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전략 설계의 역사, 10년

EAI는 2004년 6월 외교안보대전략 수립을 위한 중추 연구 팀으로 “국가안보패널”을 구성하고, 여기서 생산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학계 및 외교안보 정책결정 집단과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넷21포럼”을 결성했다.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전재성 서울대 교수

“국가안보패널”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큰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북한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등은 그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가안보패널과 지구넷21포럼은 지난 10년 간 한결같이 한국 외교안보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단일한 연구과제를 위해 15-25여명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10년 간 84차례의 연구발표 회의를 갖고, 일관된 방향 하에 연구결과를 생산해낸 경험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EAI 외교안보연구의 특징은, 첫째,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21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 그대로의 ‘대전략’ (grand strategy)을 그리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전지구 차원에서 전개되는 복합적인 환

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이해로부터 출발했다. 둘째, 철저하게 한국 ‘스스로’의 전략적 포지션에서 출발하되, 우리와 공존하는 주변 강국들의 ‘전략’과 ‘힘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한 조건 하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재정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상대적 후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세력배분구조의 변화, 국가와 진영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 권력자원의 변화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 전략을 포괄하고자 했다. 넷째, 기존의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초당파적 정책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흑백논리의 냉전시대 진영론으로는 21세기 복합위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외교 3대 전략 : 복합·공진·중견국 외교전략

2012년은 10년 간의 외교안보대전략을 집대성하여 세상에 선보인 시간이었다. 2012년은 한국의 정권교체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주변 강국의 리더십이 동시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시기였다. 따라서 새 정부 외교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었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2013년 8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선임
하영선 EAI 이사장 · 이숙중 EAI 원장
(사진출처 : 청와대)



2012년 5월 3일
통일부 · EAI 공동 통일준비대토론회
“지금,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



2013년 10월 8일
EAI 지구넷21포럼
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3년 4월 29일
외교부 · EAI 공동 주최 국제회의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



EAI는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발표회에서 한국외교의 거시적 미래과제를 제시하였다(2012년 12월). EAI는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3대 도전 요인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안보 및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경쟁의 심화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 요인이다(《미중관계 2025》). 김정일의 사망으로 급작스럽게 등장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선군정치의 유지와 장기생존을 위한 변화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원칙의 강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핵, 개발협력,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고 한국의 목소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활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EAI는 이러한 핵심 도전요인에 대해 ‘복합네트워크’(complex network), ‘남북공진화’(coevolution),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라는 한국외교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2012년 이전까지가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의 시기였다면, 2012년은 한국외교의 포지셔닝과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고 기본적인 추진 전략을 개념화하는 단계로 나아간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대전략에서 정책솔루션으로

대전략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013년 EAI는 여기에 주력했다. 새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외교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외교대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정리하며,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정책솔루션을 제시하였다. 2012년이 EAI의 구상과 아이디어 전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3년부터는 정책결정과 추진 단위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EAI는외교부·EAI 공동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손열 연세대 교수

외교비전” 국제회의(2013년 4월), “EAI 신대북정책” 컨퍼런스(2013년 10월), “한국 FTA 2.0 신전략” 발표회(2013년 4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초청 지구넷21포럼” 등 정책발표회를 강화하고 있다. EAI는 하영선 이사장과 이숙중 원장이 대통령 국가안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대통령 자문을 제공하고 외교부와는 공동 정책발표회를 진행할 정도로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도 이 시기 크게 강화되었다. 맥아더재단이 “중견국 외교전략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고(2013-2014년), EAI는 그 일환으로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중견국의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중견국 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2013년 4-10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해외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공동연구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핵 거버넌스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워싱턴에서 두 차례 정책발표회를 가졌다(2012-2013년).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CISAC)와도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연구를 2012년도부터 진행하여 2013년 9월 서울에서 공동 발표회를 가졌다.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연구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성과다.



2012년 11월 16일
EAI · CSIS 공동
"US-ROK Cooperation for Global Nuclear Governance"
(사진출처 : CSIS)



2013년 9월 13일 서울
EAI · 스탠포드대 CISAC 공동 컨퍼런스
"Future of Direction of ROK-US Nuclear Cooperation"
지크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교수

2013년 5월 17일 워싱턴
EAI · CSIS 공동
"Strengthening ROK-US Strategic
Cooperation: Nuclear Governance and
the North Korean Problem"
(사진출처 : CSIS)



2013년 4월 25일
한미 FTA2.0 신전략 발표회
김현중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13년 4월 3일
EAI 중견국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데이비드 채터슨 주한캐나다대사

세계의 EAI

2012-2013년은 EAI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 시기에 EAI는 견고한 연구 기반 위에 정책적 파급력을 발휘하여 명실공히 세계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굳건한 명성을 쌓고 있다.

EAI 10년, 세계 100대 싱크탱크 진입

2013년 1월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이 선정한 2012년도 세계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2012 Go-To Think Tank Report)에서 EAI는 한국 민간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순위 65위의 세계 100대 싱크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민간연구기관으로는 유일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관 통틀어 가장 높은 세계 25위, 정책연구 분야에서도 49위로 한국개발연구원(30위)에 이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0년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순위 에 이름을 올린 이래 세계 100대 싱크탱크에 진입함으로써 EAI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수준의 싱크탱크임을 입증했다.

EAI “싱크탱크세계평의회” 한국대표기관 선정

2012년 3월 미국외교협회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22개 정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를 발족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여 창립 멤버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맥아더재단, 2013-2014년 “중견국외교전략연구” 지원

맥아더재단은 2008-2012년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 핵심기관으로 EAI를 선정한 데 이어, 2013-2014년 “중견국 외교 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관으로 EAI를 선정했다.

미국 NDRI “Democracy Think Tanks in Action: Experience of South Korea’s EAI” 발간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이 운영하는 민주주의연구소네트워크(Network of Democratic Research Institute: NDRI)는 2013년 6월 성공적인 싱크탱크 모델로 EAI를 선정하였다. 이숙중 원장이 집필한 EAI 사례연구 보고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였다.

해외 고위관료와 전문가가 찾는 기관

미 국무부 토머스 컨트리맨 비확산담당 차관보, 헤럴드 홍 주 고 인권정책 차관보 등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 방문 시 EAI를 찾고 있다. 서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EAI 연구진 2명을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13 북한정책 컨퍼런스” 공동 개최기관으로 EAI를 선정했다.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연구소(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는 동아시아 안보위협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EAI를 찾았다. 일본 언론NPO는 2013-2014년 “한일미래대화” 공동 개최기관으로 EAI를 선택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세계 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미협력방안” 공동 연구기관으로 EAI를 선택하였으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도 “한미원자력파트너십” 공동연구기관으로 EAI와 함께했다.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운영기관

EAI는 2013년 10월 22일 발족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의 준비기관으로 출범을 주도했다. 또한 EAI가 주도하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가 ADN의 공동 운영단체로 선정되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 안보연구소 “국제관계안보네트워크” 제휴기관

국제관계안보네트워크(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 ISN)는 EAI의 영문보고서 및 EPIK 컨퍼런스 수상작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EPIK 컨퍼런스의 재정적 지원에도 참여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의 아고라 아시아-유럽네트워크 제휴기관

영국 BBC방송사 월드서비스 폴 참여기관

2013년 5월 12일
EAI · 주한미국대사관 · 성균관대 공동
“북한정책 컨퍼런스”
성 김 주한미국대사

North Korea Policy Conference 2013

Tuesday May 21, 2013
Co-host: East Asia Institute · US Embassy Seoul · Department of Public Affairs, Sungkyunkwan University



2012년 10월 12일
EAI 스마트토크
헤럴드 홍주 고 미 국무부 인권법률담당 차관보



2013년 5월 11일 도쿄
EAI · 일본 언론NPO 공동
제1회 한일미래대화
가와구치 요리코 전 일본외무대신 ·
자민당 참의원

2013년 5월 11일 도쿄
EAI · 일본 언론NPO 공동
제1회 한일미래대화



2012년 10월 29일
제4차 Trilateral Dialogue
소에야 요시히데 케이오대 교수
리우 후코오 대만국립정치대 교수
이승주 중앙대 교수



2013년 4월 29일
EAI-외교부 공동주최 국제회의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자칭 귀 북경대 교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중견국외교연구팀
이용욱 고려대 교수



르네상스2.0 연구팀
정주연 고려대 교수



성공한 대통령, 지속가능한 신뢰사회 만들기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선진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성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소통의 강화가 관건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만이 아닌 신뢰받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사회의 성숙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대립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로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미완의 프로젝트,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2002년 EAI가 설립된 첫 해 중점을 두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바로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였다. 16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발표한 《대통령의 성공조건 I·II》(2003)가 그 첫 성과였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EAI는 5년 단임제의 특성상 두달여의 인수위 활동이 대통령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고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2007)을 발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EAI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으로 ‘거버넌스의 질’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 이후 지난 정부들의 국정운영 성과와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넌빌리티(governability) 형성과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의 리더십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진 전현직 인사(정책위원장,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를 초빙하여 라운드테이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팀
이재열 서울대 교수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팀
한규섭 서울대 교수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팀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블을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했다.

연구진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개발된 어젠다를 정리하여 주요 결과를 선거 직전 “채널A 개국 1주년 특집 생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부 정책제언을 담아 2013년 1월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2013)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며 이를 새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후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회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여론 환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

국정소통의 강화, “EAI 국정소통지수” 개발

역대 대통령 실패의 핵심 원인은 국정과정에서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EAI는 2011년부터 특임장관실의 연구 지원을 받아 매년 정부의 국정소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 개발에 착수했고, 2012년 국정소통지수 개발을 완료했다. EAI가 개발한 국정소통지수는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한국정부학회 발표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엄밀한 검증 거쳐 특임장관실에 보고되었고, 학문 및 정책 목적 차원의 완결성과 지수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기존의 국정소통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정부의 소통행위에 대한 평가에 한정된 반면, “EAI 국정소통지수”는 국민들의 정부소통에 인식저변을 좌우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였다.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EAI는 2004년부터 국정 거버넌스에 영향력이 큰 24-26개 파워조직을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력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조사해왔다. 영향력에 부응하는 신뢰도 확보가 거버넌스 작동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한 개별 조직들에게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과없이 전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

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2013년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대기업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다른 조직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이지만, 개별 조직들로 보면 한국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이끄는 힘이 기업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CSR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새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된 반면,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는 부정적이다. 특히 진보적 시민단체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최하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진보 정치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버넌스 작동을 주도하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EAI는 이들 핵심 권력기관이 영향력에 부응하는 신뢰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면 성숙한 선진 거버넌스체제 구축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CSR의 길 : CSR에서 CSV로

EAI는 2013년 역점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조사를 진행했다. 2009년까지의 조사를 끝으로 일단락했던 CSR 조사를 다시 재개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CSR 담론의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표준을 앞세운 당위론적인 CSR논의처럼 기업과 사회를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CSR이 기업의 홍보전략으로 전략해버린다면, 한국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CSR 담론의 역기능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에 EAI는 2013년부터 글로브스캔의 국제CSR인식 조사에 사회적기업연구소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CSR Monitor> 보고서 시리즈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다. 여론을 통해 한국 CSR의 딜레마가 무엇이고,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CSR,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라운드테이블

김병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부총리

김종인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성경룡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박형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윤여준 김영삼 정부 공보수석

이동관 이명박 정부 대변인

이원중 김영삼 정부 정무수석

한광옥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



민심과 만나는 정책



2012년 총선과 대선, 20년 만에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권교체기. 모두가 궁금해했던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그보다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이고,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다. 경주마식 단순 지지율의 보도에 촉각을 세우기보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지지율 변화에 담긴 민심의 변화를 읽고자 했다.

EAI 선거여론 분석의 차별성

기존의 선거여론 분석은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2030 대 5060 세대 균열이라는 ‘일차원-양극화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서는 어느 진영이 더 결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인 구도 하에서 선거 판세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여론의 분석은 천편일률적으로 정권심판론의 위력, 후보단일화 변수, 2030 투표율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4월에 열린 총선에서 대부분의 선거전문가들은 높은 정권심판론과 야권단일화를 근거로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다. EAI 선거여론분석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존 여론분석과 차별성을 입증했다.

첫째, 분석프레임이 달랐다. EAI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진보-보수, 호남-영남, 세대 양극화의 틀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진보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가 공존하고 정치이념적으로 유연한 상충적 유권자(ambivalent voter)의 증가에 주목했다. “안철수현상”을 만든 중도무당파층이 단일집단으로 최대 다수를 구성하고 영호남이 아닌 수도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달했다. 진보 대 보수의 경쟁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했던 수도권의 중도무당파층이 2012년 선거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심판론에 동조했지만 야당을 대안정치세력으로도 신뢰하지 않았다. 정권심판 분위기가 높았음에도 또한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했음에도, 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야당 지지로 흡수되지 않고 여야 균형국면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적중했다.

둘째, 대부분의 선거분석은 세대균열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와 40대에서의 친야 성향으로 인해 2040세대 연합이 5060세대 연합에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변수는 젊은층 투표율이라고 했다. 그러나 EAI 선거분석은 이미 7월부터 10년 전에

비해 570만표 늘어난 5060세대의 규모에 주목했고, 인구고령화 현상과 함께 이들이 야당에 대해 갖는 불만과 불안감에 주목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젊은층의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5060세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대와 17대 대선에 비해 젊은층은 투표장으로 결집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 주관적인 여론해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의 삶의 실태 변화에 주목한 결과였다.

셋째, 이러한 민의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방법론적인 차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국 선거연구 사상 처음으로 시도했던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의 패널리론조사의 경험과 함께 정교한 추세분석을 위해 매월 정기여론조사를 병행한 결과였다.



2012년 12월 1일

EAI-채널A 특집 토론회 “대통령의 성공조건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3년 EAI가 정치여론조사에서 정책 분야 여론조사를 강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보인식 변화 : 진보적 친미, 보수적 햇볕 여론 부상

우선 북한의 전쟁위협과 개성공단의 차단으로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EAI는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어 실시한 “2013정치안보현안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의 안보인식을 조사했고, 과거의 조사결과와 꼼꼼히 비교했다. 선거행태뿐 아니라 대외 안보인식에서도 “진보=친북=반미” 대 “보수=반북=친미”라는 과거의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발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진보주의자가 증가했고, 반대로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적 햇볕론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의 낡은 이념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맹목적인 대북유화책이나 대북강경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대북정책의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악화되는 대중·대일 여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지고 안보불안감은 높아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밀접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할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2013 한중 국민인식 조사” 및 “2013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 중국의 군사대국화 및 북한 감싸기, 한중 경제마찰 등의 정책적 태도뿐 아니라 고구려사 논쟁과 같은 민족정체성의 충돌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독도영유권 논쟁, 과거사 왜곡, 정치권의 보수우경화 경향이 커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커지고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도 우려스러운 정도



EAI 중국연구패널 위원장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로 증가했다. 2013년 5월 8일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 언론 NPO와의 조사 결과 발표회에 양국 주요 언론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도 조사 결과를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G2를 보는 세계의 눈 악화

중국의 부상으로 하드파워는 물론 미중 간 소프트파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AI가 한국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2013 BBC 월드서비스 25개국 글로벌 폴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세계인의 긍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이 미국을 넘어섰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위기 이후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중국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지만, 대안으로까지 자리 잡지는 못한 결과로 보인다. EAI 연구팀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리더십 경쟁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는 상호인식이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상호인식의 악화가 지역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5월 7일 도쿄
제1회 한일 국민공동여론조사 발표회
김정 EAI 사무국장, 정원철 수석연구원,
쿠도 야스시 언론NPO 대표



2013년 11월 14일
EAI 전문가세미나
“Deliberation and Its Effects: The View from
Deliberative Polling”
로버트 러스킨 텍사스-오스틴대 교수



2013년 3월 29일
EAI · 한국정당학회 · 이화여대국제통상협력연구소 공동
“한국 정당정치 신뢰의 위기와 성찰, 그리고 진화” 학술회의
EAI 선거패널 연구위원
김준석 동국대 교수, 박원호 서울대 교수,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
장승진 국민대 교수, 정한울 EAI 사무국장 ·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국에서 세계의 인재를 키우다



EAI의 생각은 다르다. 그 동안 차세대 리더의 육성 방법은 우물안 개구리식이었다. 어떻게 하면 ‘밖’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세계적 리더로 키울 것인가에 집중했다. 한국의 젊은 차세대 인재를 대규모로 해외에 보내는 데 급급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그러나 EAI는 해외 인재를 한국으로 불러와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젊은 차세대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21세기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고 새 시대의 역량을 배양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EAI를 찾은 인재들이 한국사회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코리아프렌드십”, 주한 해외유학생에 주목하자

한국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한국을 잘 알고 좋아하는 리더들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 ‘지한파’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의 인재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선발된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해외 공공외교전을 펼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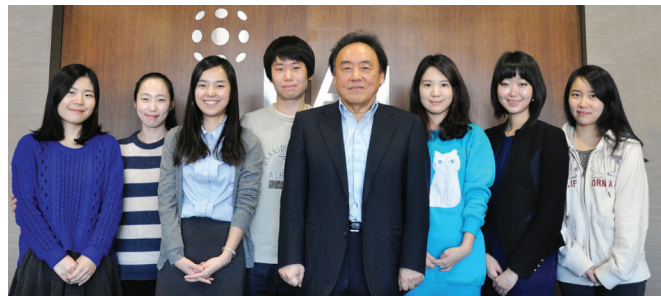


그러나 EAI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한국에는 수많은 해외 인재들이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9만 명에 가까운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의 각 대학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와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걸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공공외교의 자원이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나아가 미래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것은 다시 글로벌 코리아의 자양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우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KF-EAI 코리아프렌드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좌를 구성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코리아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 국내 차세대 인재들과 교류하는 “코리아프렌드십 넥스트제너레이션 컨퍼런스”, 한국의 각계 리더는 물론 한국에 주재하는 해외 리더들과 만나는 “주한 외국대사 라운드테이블”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한국에 유학 온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44개국 미래인재들이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21세기 국제리더 육성의 산실, “EAI사랑방”

EAI 하영선 이사장은 2012년 EAI 사회과학대강좌,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화 : 천하에서 복합까지”를 통해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 들어서는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EAI 사랑방”을 시작하였다. 상반기에는 “현대 세계정치학 강의”, 하반기에는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 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미래 국제정치의 리더, 전문가를 꿈꾸는 최우수



2013년 하반기 EAI 사랑방

인재들을 선발하여 국내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담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강좌를 마련하였다. 국제정치의 철학, 역사, 이론을 포괄하는 깊이 있는 강독을 기초로 심도 깊은 세미나를 통해 차세대 국제정치 리더들이 육성되고 있다.

차세대 인재육성의 요람, “EAI인턴십”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은 멀리 있지 않다. 국내외 주요 대학의 다양한 공부에 전념하면서도 미래 리더의 꿈을 갖고 EAI를 찾는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EAI는 인턴십 참여 학생을 단순한 연구보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인턴십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과 사회인, 전문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EAI인턴십 월요 정기세미나”가 대표적이다. EAI인턴십은 스펙쌓기나 비용절감의 수단이 아니다. EAI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부서별 담당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주제별 강좌와, 각자의 꿈을 연구원 및 동료 인턴들과 소통하는 “말랑 말랑 토크”가 EAI의 한 주를 열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과 EAI인턴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AI는 인턴십 참여 학생들이 해외 정부기관의 담당자들과 만나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더 잘



2013년 EAI 하계 인턴십 참가 학생들



2013년 8월 8일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최우수상 수상자 김후리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 주재 해외 정부기관들과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셋째, EAI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각종 연구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네트워킹하고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한다. 각종 국내외 행사, 보고서 제작, 회의 준비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EAI인턴십을 거친 인재들은 역대 인턴네트워크인 “에픽 스파이더스”(EPIK Spiders)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경쟁하는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EPIK Young Leaders Conference)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다. 컨퍼런스 기획, 홍보, 진행, 발표까지 이들이 직접 주도하는 행사이다.

매년 열리는 본 행사에는 북미대륙,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의 차세대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참여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발표되는 논문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삼양사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대 안보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제안보네트워크(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Network: ISN)가 본 행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수상작들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2013년 12월 2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갈라



2013년 8월 8일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정재관 고려대 교수와
참가 학생들

2013년 8월 8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넥스트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신재혁 고려대 교수와 참가 학생들

2012년 8월 14일
EAI 인천홀커밍데이

2013년 6월 7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넥스트제너레이션 타운홀 미팅



세계를 향한 지식나눔

EAI는 출판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의 단행본, 학술저널 발간을 기본으로 <EAI 워킹페이퍼 시리즈>, <EAI 이슈브리핑 시리즈>, <EAI 논평>, <EAI 메모> 등 다양한 보고서 시리즈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상을 활용한 <지식마루톡>, <스마트 Q&A> 등 온라인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지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독자층 확대를 위해 EAI의 연구 성과는 영어 및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배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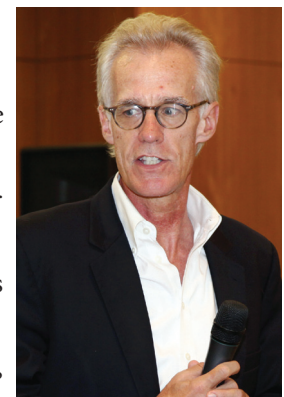
세계 Top 영문 학술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EAI를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산실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시작한 영문 학술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 발간 13년을 맞이했다. 2008년에는 국내 민간싱크가 발행하는 저널로는 최초로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가 편집주간을 맡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호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6인의 편집부주간을 비롯하여 35인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세계 정상의 동아시아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자리 잡았다. JEAS는 현재 미국의 린라이너출판사(Lynne Rienner Publisher)를 통해 연 3회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심사를 거쳐 2006년부터 학술지 발행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13년에 발표된 학술지인용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에 따르면, JEAS는 국내의 SSCI 등재 학술지 중 최고 수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주요논문

- Dean Lacy and Emerson M. S. Niou, "Information and Heterogeneity in Issue Voting: Evidence from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in Taiwan," Vol.12, No.1.
- Björn Jerdén and Linus Hagström, "Rethinking Japan's China Policy: Japan as an Accommodator in the Rise of China, 1978-2011," Vol.12, No.2.
- Edmund Malesky and Paul Schuler, "Star Search: Do Elections Help Nondemocratic Regimes Identify New Leaders?" Vol.13, No.1.
- Special Issue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East Asian History," edited by David C. Kang, Vol.13, No.2.



JEAS 편집주간
스테판 해거드 UCSD 교수

EAI 단행본

EAI의 책에는 EAI의 문제의식, 아이디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EAI는 책상머리가 아닌 치열한 현장의 고민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2-2013년에도 외교안보, 여론분석, 거버넌스, 정치경제 등의 분야에서 총 10종의 국문단행본과 1종의 영문단행본을 엮어 세상에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발간한 《동아시아국제정치》, 《위기와 복합》, 《일본과 동아시아》 3권을 2012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2012-2013년 발간한 단행본들도 차기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EAI 단행본들이 정치학 분야 학술연구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및 정책 중심의 성과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EAI 온라인 보고서 시리즈

EAI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첫째,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의 결과를 담은 학술 논문 및 정책 보고서는 〈EAI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통해 발간하고 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국가안보패널보고서〉(NSP Report), 중견국외교연구팀이 발간하는 〈EAI Middle Power Diplomacy Initiative Working Paper Series: MPDI WP Series〉, 〈EAI 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Series: MASI WP Series〉, 여론분석 영역에서 발간하는 〈EAI 오피니언리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각종 〈EAI 스펙셜리포트〉 시리즈도 포함된다.

둘째, 각 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주장, 주요 발견을 정리한 〈EAI 쟁점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MPDI Issue Briefing Series〉, 〈MASI Issue Briefing Series〉 및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EAI 논평〉, 〈EAI Commentaries〉 시리즈를 발간한다. 여론분석 분야에서 발간하는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CSR Monitor 시리즈〉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각종 라운드테이블, 인터뷰, 회의결과의 핵심결과를 요약 보고하는 〈EAI 메모〉 시리즈를 발간한다.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라운드테이블인 〈스마트토크〉, 전문가들의 인터뷰 시리즈인 〈스마트 Q&A〉,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 결과와 요약문을 담은 〈EAI 메모〉, 〈EAI 오피니언 메모〉 등이 포함된다.

EAI 온라인공개강좌(MOOCs)

현재 세계 주요 대학들로부터 시작된 일반대중 대상의 온라인 공개강좌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AI 역시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EAI의 주요 연구결과를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뿐 아니라 시민교육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동영상 기반 공개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EAI 사회과학대강좌〉, 〈코리아프렌드십 아카데미 코스 “한국을 듣다” 강좌〉, 각종 국제컨퍼런스와 〈스마트 Q&A〉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학력 혹은 지역을 떠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EAI 연구결과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EAI 온라인공개강좌(Mass Open Online Courses: MOOCs)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7.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8.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19.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헌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11.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12. 일본 부활의 리더십 :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EAI 여론분석리포트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 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8.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7. Future of North Korea 2032: Coevolutionary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세계를 향한 지식 나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EAI는 대만의 장경국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의 교육기관 YBM/KIS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동아시아의 평화, 거버넌스 및 발전”을 주제로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북미를 비롯한 전세계 비아시아권 정치학계의 중견 교수 및 신진 학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5명 내외의 EAI 펠로우를 선정하여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펠로우는 서울을 비롯하여 북경, 상하이 도교, 타이페이 등의 5개 참여기관(EAI, 북경대, 푸단대, 게이오대, 국립대만대) 중 2개 이상을 선택 방문하여 강연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현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13 펠로우

카이 허 유타주립대
유현주 트리니티대
유 정 코네티컷대
피터 반 네스 호주국립대
토마스 버거 보스턴대



2012 펠로우

다니엘 P. 앨드리치 퍼듀대
강명구 뉴욕시립대
패트릭 쾰너 함부르크대
민 예 보스턴대
유엔강 왕 웨스트미시건대



2012-2013 EAI를 방문한 펠로우

지식 네트워크, EAI의 협력기관

게이오대학

국립대만대학

국제안보네트워크(ISN)

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CIGI)

글로브스캔(GlobeScan)

동아일보/채널A

마카오대학

매일경제

맥아더재단

미국외교협회(CFR)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북경대학

비비씨방송(BBC)

사회적기업연구소

삼양사

서울방송(SBS)

성균관대학

스탠포드대학(CISAC)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와이비엠

외교부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 언론NPO

장경국재단(대만)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조선일보/조선TV

주원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주한일본대사관

중앙일보/JTBC

특임장관실

푸단대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리서치

한국방송(KBS)

한국외국인학교

한샘

희망과 열정

2013년 11월 현재 총 284명의 후원회원이 EAI의 연구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EAI가 독립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정책 아이디어 생산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후원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2012년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EAI는 후원회원을 모시고 10주년 기념행사 및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EAI는 지난 1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으로 후원회원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4월
후원자 모임

2013년 8월
후원자 모임



2013년 8월
후원자 모임



2012년 12월
후원자 모임



2013년 7월 16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후원자 모임



2012년 10월
후원자 모임

2013년 8월
후원자 모임

2013년 8월
후원자 모임



2013년 7월
후원자 모임

2011년 12월 14일
EAI 9주년 후원의 밤



강국연	김영구	김희정	서정원	유지영	이신화	장준혁	진지운
강명훈	김영미	김희진	서희정	유창수	이여희	장진호	차국린
강은경	김영섭	남윤호	선승훈	유홍민	이영주	장희진	채규호
고병희	김영원	노익상	성정은	육은경	이원종	전경수	채성일
고승연	김용규	노호식	손대현	윤민영	이윤미	전명선	최 건
고혜선	김용남	노환길	손 열	윤병석	이인옥	전영평	최규남
공성원	김 원	류재희	손재키	윤석민	이재섭	전혜진	최동규
공정문	김 원	명정모	송기춘	윤용집	이정은	정기용	최병규
공창위	김유상	문지욱	송우엽	윤우성	이정호	정랑호	최병준
구법모	김유주	민선식	송지연	윤재훈	이정희	정병갑	최복대
구상환	김은숙	민선영	신권식	윤정림	이종진	정석희	최은혜
구윤정	김은영	박근아	신동원	윤정선	이주연	정영진	최종호
구준서	김인섭	박대균	신명철	윤창민	이중구	정원철	하영선
권세린	김재두	박미영	신보희	윤혜성	이지원	정윤석	하형일
기의석	김 정	박상민	신상화	이곤수	이지희	정윤호	한금현
김건민	김정은	박상용	신성수	이규호	이진아	정재관	한상원
김건호	김정은	박석원	신성호	이 근	이창원	정재호	한상철
김경순	김정하	박성만	신영준	이기황	이창헌	정주연	한선호
김경지	김 준	박성은	신영환	이내영	이 항	정주환	한숙현
김관용	김지영	박소연	신준희	이동훈	이해완	정진영	한승혜
김국형	김지윤	박수진	심윤보	이미혜	이해욱	정해일	한일봉
김기정	김 진	박수현	안건영	이민교	이현옥	조규완	한정원
김기준	김진아	박연호	안용찬	이민자	이현희	조동현	한지현
김남희	김진영	박용준	안중익	이범주	이혜선	조상호	한진수
김대영	김진혁	박장호	안현정	이병인	이호준	조은희	홍성우
김동건	김창수	박재시	안현호	이봉재	이홍구	조창걸	홍성원
김만호	김창원	박재준	양호실	이상원	이홍규	조현선	홍호영
김병국	김하정	박진원	엄찬섭	이상호	이홍재	조홍식	황성진
김병표	김한기	박찬근	여동찬	이선주	이희정	주미야	황 수
김봉하	김현성	박찬희	여현정	이선희	임지순	주영아	황정원
김상래	김현전	박형민	우미경	이성량	임현모	주원사우회	카일 캐슬리
김수진	김형운	배기욱	원종숙	이소영	임현진	주진균	
김승빈	김형재	배위섭	원종애	이소영	임홍재	주 한	
김시연	김형준	백송현	유리나	이숙종	장동우	지혜리	
김양규	김형찬	백혜영	유승훈	이승주	장세형	진선희	
김연옥	김효신	서은숙	유정석	이시연	장재훈	진재욱	

EAI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2012년 5월 31일)



이홍구 EAI 전 이사장



하영선 EAI 신임 이사장



이홍구 EAI 전 이사장, 이숙중 EAI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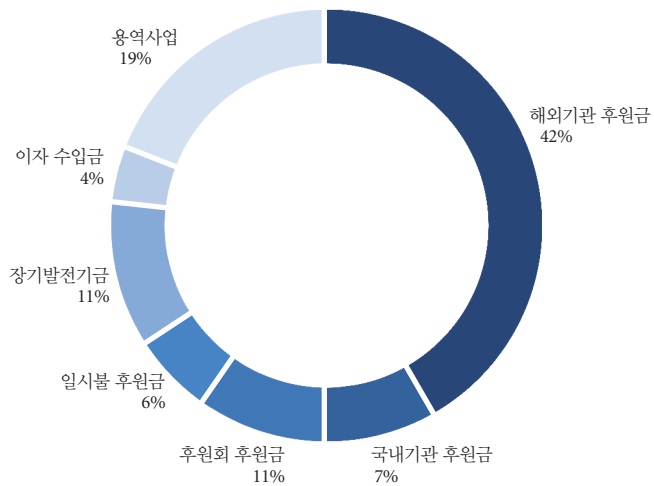


EAI 설립자 김병국 고려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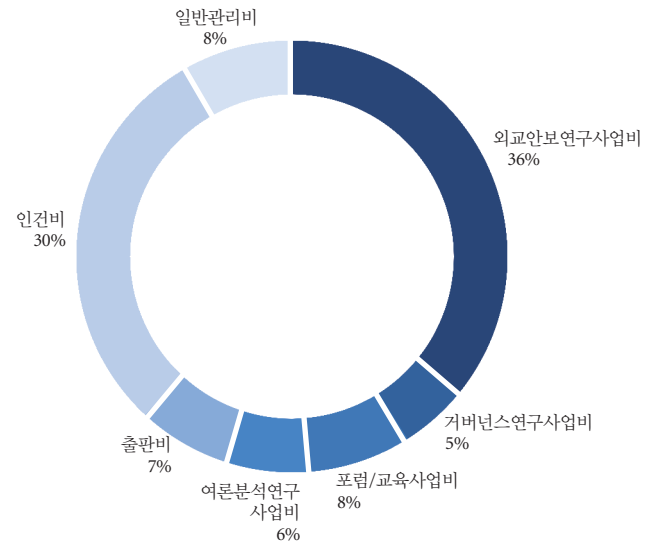


2011년

수입 1,710,661,8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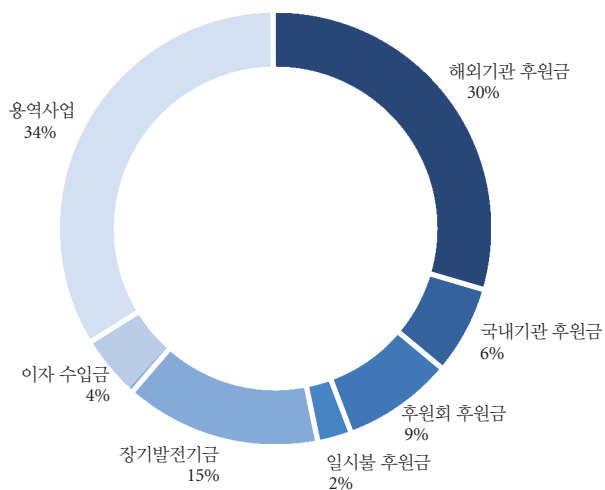


지출 1,760,722,19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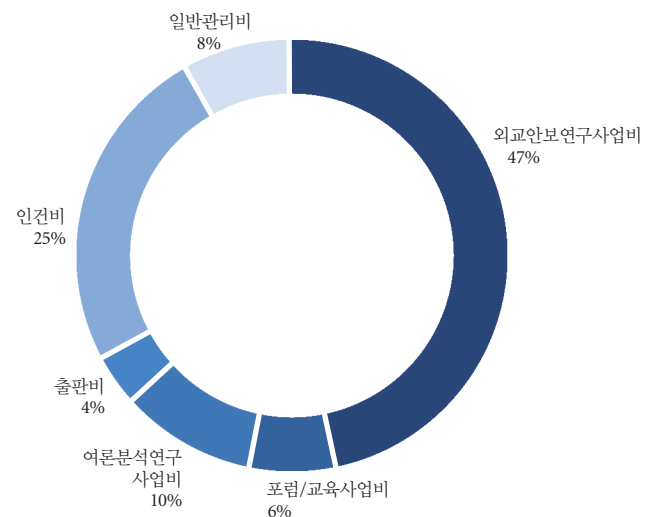


2012년

수입 1,904,272,757원



지출 1,777,244,455원



국가안보패널

하영선	김연구	서봉교	신성호	이용욱
강윤희	김치욱	손병권	이동률	전재성
구민교	마상윤	손 열	이동선	조동준
김성배	박병광	신범식	이승주	조동호
주재우				

일본연구패널

손 열	남기정	박정진	이기태	이정환
김철평	박명희	박철희	이원덕	이지영
최희식	한의식			

중국연구패널

이동률	김영진	서봉교	원동욱	이정남
김애경	박병광	신종호	이장원	정환우
하도형	한석희			

EAI 안보넷

하영선	김양규	이동률	이숙중	조동호
김성배	김치욱	이상현	전재성	한석희

북한연구팀

조동호	김연철	박순성	양문수	이종호
김석진	김현경	변창흠	이수정	정형곤

르네상스 2.0 연구팀

김병국	김선혁	배진석	이용욱	정주연
-----	-----	-----	-----	-----

EAI · SBS 통일한국 연구팀

김병국	정원칠	정한울	주형민	최영준
최우선	황태희			

소셜이노베이터 연구팀

김병국	장진호	정재관	정원칠	정한울
-----	-----	-----	-----	-----

EAI · 사회적기업연구소 CSR Monitor 연구팀

서재혁	이영동	장용석	정재관	정한울
이내영	이현우	조희진	정원칠	

통상정책 2.0 연구팀

손 열	송영관	이승주	이용욱	전재성
-----	-----	-----	-----	-----

중견국 외교 연구팀

김상배	김홍규	박병광	이동률	이승주
김형중	류용욱	손 열	이숙중	이용욱
전재성	최 강	탄시생		

스마트 Q&A

고재남	박영준	이동률	전봉근	정환우
김성배	박원곤	이상현	전재성	조동호
김수암	손병권	이승주	전진호	주재우
김영호	손 열	이용욱	정한울	최명해
한석희	황지환	하영선		
토렌스 피릭	존 박		비노드 아가왈	
얀 멜리슨	토마스 버거		고든 플레이크	
지그프리드 헤커				

한국외교 10대 과제 토론회

김연철	박순성	박인휘	왕선택	정낙근
조병제	최대석	황진하		

한국외교 10대 과제 발표회

길정우	박인휘	백학순	이종석	
-----	-----	-----	-----	--

지구넷21포럼

김현중	성 김	류길재		
-----	-----	-----	--	--

한국개발협력전략

이숙중	구정우	김태균	손 열	이승주
-----	-----	-----	-----	-----

미중관계 2025

김병국	김 정	신범식	이용욱	전재성
김동훈	손 열	이동선	주형민	정주연
차두현	최 강			

신대북정책 연구팀

하영선	박원곤	전재성	조동호	
-----	-----	-----	-----	--

신대북정책 발표회

김석진	이도훈	이정철	조남훈	천해성
-----	-----	-----	-----	-----

EAI · 스탠포드 대학 CISAC 공동 연구팀

하영선	신성호	이숙종	임만성	전봉근
전재성				
지그프리드 헤커		에드워드 브랜드포드		
차임 브라운		로버트 프로스트		

EAI · CSIS 공동 컨퍼런스

토비 달턴	스캇 스나이더	윌리엄 토비
토머스 모어	샤론 스윙소니	고든 플레이크
개리 새무어	빅터 차	존 햄리
앤드류 슈워츠	부르스 클링너	

핵안보정상회의 연구팀

김성배	신성호	전재성	전진호	이상현
-----	-----	-----	-----	-----

신정부 외교비전 컨퍼런스

박인휘	윤병세	이숙종	전재성	하영선
손 열	이상현	장달중	최 강	홍용표
가나스기 겐지		자칭귀		
샤파크 피크튀르크		피터 힐		
대니얼 드레즈너				

한국 FTA 2.0 신전략 발표회

김현중	김형주	박성훈	전정희	최경림
최낙균				

한국개발협력전략 발표회

권 올	권혁주	이성훈	임정택	장재운
차문중				

한일상호인식조사

김 정	정원칠			
오구라 카즈오	유호 니시무라	쿠도 야스시		

한일미래대화

김혜경	박진원	손 열	이숙종	이태식
김희정	서영교	윤종구	이준석	홍지명
마츠야마 료이치	이토 료지		야마모토 코조	
오구라 카즈오	이토 신타로		카와구치 요리코신	
오오타케 요코	야마모토 카즈히코		쿠도 야스시	
하코다 데쓰야				

중견국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데이비드 채터슨	윌리엄 패터슨	에드문드 후지타		
비쉬누 프라카쉬	호세 루이스 베르날 로	드리게스		
강찬호	김태형	이백순	정구현	이영조
감운안	서정진	이숙종	조충제	전수진
김우상	전재성	장명수	박인휘	황진하
김중근	손 열	전재성	이복형	

남북경협전략 발표회

김기정	길정우	최대석	홍익표
-----	-----	-----	-----

대북정책컨퍼런스

구정우	박재직	안찬일	하영선	김용현
김성배	서창록	우승지	하태경	손기웅
최상훈	한용섭			
로버트 킹	성 김		테렌스 뢰릭	
레슬리 바셋	에드워드 동		패트릭 맥케건	
브렌트 바이어스	안드레이 란코브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라운드 테이블

김병준	박형준	윤여준	이원종	김종인
성경룡	이동관	한광옥		
강원택	이곤수	이숙종	장용석	정한울
윤성이	이내영	이재열	정원칠	한규섭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 국정과제

강원택	이내영	이정우	한규섭	박형준
이숙종	최 훈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선거패널연구

강원택	김춘석	신창운	이곤수	장승진
권혁용	박원호	윤광일	이우진	정원칠
김성태	박찬욱	오승호	이현우	정한울
김준석	서현진	유석상	임성학	지병근
현경보				

2012 국정소통지수 연구

강원택	이내영	정원칠	지병근	이곤수
이재열	정한울			

정당학회 · EAI · 이화여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 공동 컨퍼런스

강신구	김준석	손병권	엄기홍	장승진
강원택	박원호	서현진	이내영	조기숙
강주현	류재성	윤광일	임성호	정한울
정희옥	최준영	한정택		

핵안보정상회의전략 발표회

박 일	전봉근	한용섭
-----	-----	-----

인프라비전

김귀근	김영호	백승주	이상현	홍규덕
김근식	박인휘	신성호	전재성	

스마트토크

엘리트 강	매이슨 리치	이프레임 인바르		
헤롤드 홍주 고	루예청	차이둥지에		
페트리샤 괴데	마크 매닌	크로스 킨츨리맨		
아이탄 길보아	로리 메드카프	로버트 케이건		
아브라함 덴마크	스캇 스나이더	폴 에반스		
존 딜러리	비노드 아가왈	윌리엄 토비		
댄 라코브	제로르즈 에케르	왕 페이링		
우지 루빈	데이비드 웰치			
감운안	김태현	송지연	이옥연	정상률
구민교	마상윤	신범철	이왕휘	정종필
구정우	문승현	신성호	이용옥	정재관
김선혁	박병광	이동률	이정남	정진영
김영호	박인국	이동선	장지향	최영철
김애경	박원근	이상현	주재우	최창모
김연규	박창권	이성훈	전병근	하영선
김종범	박형중	이숙중	전봉근	한석희
김지영	봉영식	이신화	전성훈	황지환
김창수	손병권	이승주	전재성	황재호
김태호	손 열	이승혁	정경영	

Trilateral Dialogue

마이클 생티 가우	첸이 린	미요카 이사오
사하시 료	야스요 사카타	츄네오 와타나베
밍 리	요시히데 소에야	야시히로 이즈미가와
후쿠오 리오	치엔 파 엔	미그노안네 찬
두하이 리오우	티엔린 엔	젠테 황
김준석	손 열	이동률
이승주	전재성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컨퍼런스

담바 간바	타월와데 부레쿨	크리스토퍼 워커
토비아 바스쿠	패키아소치 사라바나무투	치릭 유
코스투브 반디오파디아	친엔 우	야스시 쿠도
이숙중	조희연	

10주년 대강연회

김우창	김지하	박지향
-----	-----	-----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전문가세미나

강명구	카이 허	유안강 왕	유 정	토마스 버거
민 예	피터 반네스			
강선주	마상윤	여유경	이태환	주재우
구민교	박병광	이동선	이호철	최영종
김영호	백우열	이승주	정주연	최은경
김태형	신성호	이용옥	정현주	한석희
브라이언 포트				

코리아프렌드십 강연회

강원택	김병국	노회찬	전재성	강인선
김윤희	이준석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알렉산드로바 이오단카	시아오우에 장	지아지아 리우		
수에메이 양	치 첸	사울 세르나		
하이수 왕				
신재혁	이나영	최수근	최은실	박준상
김민주	안중현	이윤진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강성혜	김태영	박성윤	여정민	정은빈
강현민	김후리	박은영	이나영	정재관
구정우	노경실	박혜연	이서호	지혜수
김동현	도일훈	변서영	임희현	한지민
김민주	류재승	안국태	정강은	황인재
현정희	홍성표	니야티 간디		

넷칼 펠로우즈

구정우	케네스 김	존 유피제이 김
레이몬드 리베라	태드 요	

EAI 워킹페이퍼 시리즈

외교안보 (영문)

- Korea's Confucian Strategies toward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and Their Implications
- Facilitating China-U.S. Relations in the Age of Rebalancing: ASEAN's "Middle Power" Diplomacy
- Informal Institutions in Autocracies: Analytical Perspectives and the Ca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A Challenge for the ROK-U.S. Alliance: Defense Cost-Sharing
- Addiction to Uncertainty: Regulatory Rush and the Exceptional Growth of Financial Derivatives Markets in South Korea
- A Unique 18th-Century Korean Map
- The Role of Governmental Capacity and Citizens' Input in Disaster Management
- China Invests Overseas: How Home Institutions Affect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 Managing Hegemony in East Asia: China's Rise in Historical Perspective
- US-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 What Lies Ahead?
- Collapse of Moral Authority and the End of the Civilizer State: Comparing Two Cases-Mao's China and George W. Bush's United States
- China's Post-Cheonan and -Yeonpye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 A Tamed Struggle for Influence: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 Do Domestic Processes Prevent Effective Balancing? : Alliance Policies by Japan and South Korea
- Navigating a Sea of Troubles: US Alliances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 Rising China and the Chinese Public's Security Perceptions
- When World's Workshop Meets Its Office: Comparative Advantage, Institutions, and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India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n Humanitarian Emergencies: From Libya to North Korea?
- Decision Making During Crises: Prospect Theory and China's Foreign Policy Crisis Behavior after the Cold War
-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Institutional Balancing in East Asia

외교안보 (중문)

- 中國對東亞區域政策之戰略困境與可能選項
- 美中兩國의 相互認識：合作者還是競爭者
- 2012年美國大選結果對東亞地區的影響
- 韓中日三國合作與東亞國際政治秩序
- 韓國의 中等強國外交與複合型外交
- 李明博政府의 全球戰略與奧巴馬政府의 東亞戰略
- 美國縮減國防預算對東亞安全의 影響
- 金正恩時代北韓의 權力結構與政策取向
- 日本民主黨의 分裂與國內政治의 未來
- 全球金融危機以後中國在金融領域里的變化：以對中美關係의 影響爲中心
- 環境, 氣候變化視角下的國際政治與韓國의 外交
- ‘后京都時代’ 中國의 氣候政策與美中關係
- 人道主義危機狀況下的保護責任(R2P)：從利比亞到北韓
- 從防守型合作到均衡型合作：美國的貿易攻勢與中國的對應
- 21世紀合作體制的變化與韓國
- 變化中的全球金融秩序和韓國的選擇：地區和全球層次的多邊主義聯系
- 自由貿易協定(FTA)在亞洲的擴散與韓國의 戰略：以雙邊主義多變化的可能性爲中心
- 台灣問題與中美關係：以全球金融危機以後的變化爲中心
- 全球能源新體系與韓國의 能源合作外交
- 金正恩의 北韓與共進·複合型對北政策
- 人口老齡化與東北亞地區安全
- 中國在韓半島의 利害關係與北韓의 未來
- 美國新國防戰略의 方針及其對韓國國家安全의 影響
- 東亞地區制度均衡의 演化動力

- 中國政治經濟的變化與穩定性展望
- 亞洲의未來安全秩序和韓國的對策
- 2010年代韓國海洋政策的問題與前景
- 權力轉移與美國對華人權外交
- 中國的能源安全政策與中美關係
- 俄羅斯的‘回歸亞洲’與韓國的對策
- 東亞地區權力結構的變化與韓國的對北政策
- 權力世襲的危機：關於北韓專制政權的展望
- 微博和中國的防火長城：中國網絡管的得與失
- 關於北韓內部民衆革命的猜想：平壤會成爲第二個的黎波里嘛？

외교안보 (국문)

- 평택 국제교류센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요약본)
- 신대북정책 제안：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 한국의 FTA 2.0 진전락 제안
- 바람직한 한국형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Executive Summary
- 재중 탈북자 실상의 변화와 정책추진방향
-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분야의 변화：중미 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포스트 교토체제 하 중국의 기후정책과 미중관계
- 21세기 개발협력 아키텍처의 변화와 한국
- 수세적 협력에서 균형적 협력으로：미국의 통상공세와 중국의 대응
- 아시아 FTA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양자주의의 다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대만문제와 중미관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Executive Summary
-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
-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 변화하는 세계금융질서와 한국의 선택：지역과 글로벌의 다자주의 연계
- 신 글로벌 에너지 아키텍처와 한국의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방향
- 인구노령화와 동북아 안보

- 金正은의 북한과 공진·복합의 대북정책
- 중국 정치·경제의 변화와 안정성 전망
- 아시아의 미래 안보질서와 한국의 대응전략
-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 세력전이와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
-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
-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과 중미관계

거버넌스 (국문)

- 미완의 혁명 리더십：도쿠다 큐이치 리더십 연구
-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나카소네 야스히로 정치리더십 연구
- 선도형 리더십으로서의 ‘변환적 지도자’：오자와 이치로의 정치리더십 연구
- 탈 자민당 정치：고이즈미의 리더십
- 우애와 ‘제3의 길’：하토야마 유키오의 이념적 정치리더십 연구
-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십-이치카와 후사에：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매력과 한계：이시하라 신타로의 이단아적 정치 리더십 연구
- 21세기의 사가모토 료마·정치 기업가적 리더십：하시모토 토루 리더십 연구

여론분석 (국문)

- 여론으로 본 한국 CSR의 딜레마
- 기업신뢰도와 CSR인식의 국제비교: 다양성과 유형별 특성
- 안보 이슈는 이념적 쟁점인가?
-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 2012 대선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신뢰도의 위기
- 2012 대선 변수：박근혜 박빙 우위 지속될까?
- 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자의 표심변화
- 2012 대선 가를 스윙보터(Swing Voter)의 표심은?
- 2012 대선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 문과 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 2012 삼국지, 최종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 수도권 40대 무당파가 본 대선경쟁 한달 평가 : 불안과 기대의 공존
-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 2012 대선 불확실성 특성 분석 : 적대적 이분법 구도의 약화와 여당 전략 변화
-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슬로건 1라운드 성적표

-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EAI 이슈브리핑 · 논평 시리즈

외교안보 이슈브리핑 (영문)

- ASEAN's Economic Community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 ASEAN's Middle Power Diplomacy toward China
- The Year 2015 or After: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lf-este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rust-building Process
- China's Perceptions and Policies Toward India
- Japan's Choice: TPP Rule Setter or Follower?
- The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Implication in East Asia
- China, Japan, 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 Asian Politics and Order
- Aging Eagle and Dark Clouds on the Security Horizon
- A Gilded Alliance: Global Korea's G-20/Yeonpyeong Moment Revisited
- Chinese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North Korea
- The New U.S. Defense Strategic Guid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ecurity
- The Limits of "Assertive" Behavior: U.S.-China Relations and the South China Sea
- Sea of Change under the Xi? A South Korean Perspective on 2013 Chinese Foreign Policy Issues
- DPJ's Broken Promise and the End of the Anti-Koizumi Era in Japan
- Predictions on Power Structure and Policy Changes of the Kim Jong-un Regime
- Chinese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North Korea
- The New U.S. Defense Strategic Guid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ecurity

외교안보 논평 (영문)

- Future Direction of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Trustpolitik
- After the U.S.-China Summit: Four Principles of Co-evolutionary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Complex Approach of Military, Economy, and Politics
-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nd South Korea's Growing International Role
- The Return of Old Putin and the New Future of Russia
-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ing Global Architecture
- Time for the Strategy of Coevolution: How South Korea Can Shape the Future of the Kim Jong-un Regime

외교안보 이슈브리핑 (중문)

- 中美首腦會談後的韓半島：對北共同進行政策與國中首腦會談的議題
- 北韓的第三次核試驗與韓國的對北政策：軍事、經濟、政治融為一體的綜合性對策
- 外交部官員眼中的核安全峰會
- 普京的再次執政與俄羅斯的未來
- 金正恩政權的未來與韓國的戰略：共同進化(coevolution)戰略的正式探索
- 變化中的國際體系與韓國
- 釜山大會以後國際開發援助體制的變化與韓國

- 金正日接班人體制的公开化與韓半島的未來
- 2012年國民所期待的新總統? 能夠與民溝通的總統
- 民主黨의 困境
- 朴槿惠總統候選人의 課題: 擴大支持率
- 政黨支持率의 下降與無黨派의 增加
- 國民對大企亞認識的複雜性

외교안보 논평 (중문)

- 北韓核危机對韓美原子能協定修訂談判的影響
- 北韓의 第三次核試驗與韓中對北政策의 合作方案
- 北韓의 第三次核試驗與韓際社會對北制裁手段의 局限性

외교안보 이슈브리핑 (국문)

- 2013년 한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 강제물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이 미 군사력, 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 전망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나아갈 길: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신뢰외교
- 꼬인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언
-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 3차 북핵실험과 한국의 대북정책: 군사·경제·정치의 3중 복합대응책 모색
- 외교부 당국자 입장에서 본 핵안보정상회의
- 오래된 푸틴의 재집권과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
- 변화하는 글로벌 아키텍처와 한국
-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공진(coevolution)전략의 본격적 모색

여론분석 이슈브리핑 (국문)

- 대선이슈와 대선결과의 영향력
-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 2013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의 주요결과
- 2013 한일 전문가 인식조사의 주요결과
- 안보 위기와 한국인의 안보의식
-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국의 국제적 평판
- 세계인의 한국 평판과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 2013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의 주요결과
- 대선결과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대선 4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 대선후보 지지 변동의 양상과 원인
-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유권자 패널의 지지 변동
- 대선 3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 단일화 파행의 결과: 부동층 늘고, 안 하락·문 지지강도 약화
-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후보등록 한달 전 대선여론
-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국의 국제적 평판
-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 4·11 총선과 대선 정국
- 2012 총선·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 2012 1월 주요 정치지표의 변화

EAI 메모 시리즈

외교안보 메모 (영문)

- U.S. Trade Linkage Strategies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a Comparison to the EU
- The Future of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Asia: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 60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U.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 Island Disputes and the “Democrat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 Security Decision Making
- Global Korea: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Security
- G2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Region
- A South Korean-Japanese Strategic Partnership: An Emerging Reality, or an American Fantasy?
- The World America Made and Current Challenges in East Asia
- Stemming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Proliferation, Globally and in Northeast Asia
- Future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 Israel’s Current National Security Issues
- Two Decades of Transform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oes the Communist Legacy Matter?

외교안보 메모 (중문)

- 第1回日韓共同世論調査 日韓世論比較分析結果
- 加拿大的中等強國外交戰略及對韓國外交發展方向的建議
- 總統的資格，國家治理能力 (statecraft)
- 總統的成功條件：關鍵是政治勢力的組織化
- 為總統的成功獻言獻策
- 時代所賦予的使命與總統的政治領導力
- 總統的成功條件：經驗與教訓
- 國家治理的局限性與總統的領導力
- 經濟民主化與準備完好的總統

- 準備好的總統以及成功領導人的條件

- 美中關係發言日志 (2012年1月-)

외교안보 메모 (국문)

- 멕시코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한국
-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 방향에 대한 제언
- 브라질의 외교전략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제언
- 인도의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한국
- 중국 동아시아 정책의 전략적 딜레마와 향후 정책 전망
-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 원조효과성을 위한 복합네트워킹” 발표회 2012-03-30
- 안보 정세 변화와 국방개혁의 당위성

거버넌스 메모 (국문)

- 준비된 대통령과 성공적 리더십의 조건
- 대통령의 성공조건 : 경험과 교훈
- 국정운영의 한계와 대통령 리더십
- 경제민주화와 준비된 대통령
- 시대적 소명과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 대통령의 성공조건, 정치세력화가 관건이다!
-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언
- 대통령의 자격,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여론분석 메모 (국문)

- 제1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결과 보고서
- 대선결과에서 드러난 사회통합 과제의 중요성
- 선거후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민심
- 18대 대선, 초반빙 구도의 원인과 전망
- 대선후보 호감도의 주요 특징
- 안철수 사퇴 이후 표심 변화
- 안철수 원장의 향후 행보와 지지자들 표심의 향배

- 대선후보 빅3의 지지자 이탈 양상과 원인
- 세대투표의 균형추 40대의 선택 : 2030세대와의 동상이몽
- 2012년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소통대통령 : 국정운영능력은 박근혜, 도덕성과 소통 능력은 안철수
- 민주당의 딜레마 : 안철수로 결집한 민주당 지지층과 인물 위주의 선거
- 박근혜 후보 지지층 확장의 과제 : 컨벤션 효과 크지 않았던 이유
- 정당 지지도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인식의 복잡성

EAI 온라인 공개강좌

EAI 정책발표

- EAI 신대북정책 컨퍼런스
-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컨퍼런스
- “2020 한국의교 10대 과제” 컨퍼런스
- 동아시아연구원-채널A 공동 “대통령 성공의 조건” 생방송 토론회
- 2012 EAI · CSIS 공동 컨퍼런스 : Session I / Session II

스마트토크

- Vinod Aggarwal
- Israel Scholars
- Abraham M. Denmark
- Scott Snyder
- Yeh-chung Lu
- Mark E. Manyin
- William H. Tobey
- Mr. Rory Medcalf
- Grzegorz Ekiert

스마트 Q&A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국의 대응방향
- The Future of U.S.-ROK Allianc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북한의 핵능력과 향후 6자회담을 위한 제언
- 6자회담 재개 전망 및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 미 국방비 감축과 한국의 국방정책
-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와 한국의 전략

-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과제
- 일본정치 우경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 북핵위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망
- 3차 북핵실험과 한중 대북정책 협력방안
- 3차 북핵실험과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한계
- 북핵실험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 진단과 처방
- 오바마 2기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과제
- 유로존(Eurozone) 위기와 중국 경제 전망
- 유로존(Eurozone) 위기 전망과 한국의 과제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동북아 국가들의 대북정책 전망
-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 공공외교와 한국의 과제
- “공세적 중국”과 2013년 중국 대외정책 전망
- 종북논란과 한국 대선 전망
- 미국 동맹체제와 동아시아 해양분쟁
-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응
- 동북아 FTA 질서와 한국의 전략
-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선택과 한국의 대북전략
- 북한 로켓발사와 한반도 핵문제 전망
-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과 동북아 핵안전 협력
- 러시아 대선 결과와 향후 동북아 정세
- 미국 신 국방전략의 함의와 한국 국방정책의 과제
- 한중 FTA의 전략적 함의와 한국의 과제
- 2012년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선택

EPIK 영 리더스 컨퍼런스

- 2013 개회식 / 세션 1 / 세션 2
- 2012 개회식 / 세션 1 / 세션 2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 2013 개회식 / 세션 1 / 세션 2

KF-EAI 코리아프렌드십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 전재성 교수 “한국의 외교와 안보 : 북한 문제와 한국의 외교전략”
- 김윤희 지부장 “문화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한국 생활문화의 이해”
- 김병국 교수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 강인선 부장 “원고지에서 스마트폰까지 한국 언론 : 지난 20년, 앞으로의 20년”
- 강원택 교수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 과제”
- 이준석 대표 “새로운 세대, 그 육성”
- 노회찬 대표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개혁”
- 사업설명회

2012 EAI 사회과학대강좌

- 제1회-제8회 강좌

EAI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회

- 박지향 교수 초청 강연회
- 김우창 교수 초청 강연회
- 김지하 시인 초청 강연회

지식마루톡 SNS 생방송

- 전재성 교수, “미중 충돌 막는 ‘중견국’ 역할해야”



김양규
국가안보패널의 지원, 미중 관계시리즈의 기획과 편찬, 스마트 Q&A 인터뷰 및 EAI 논평을 담당하고 있다.



박미영
연구원의 재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행정 및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배진석
외교안보팀 업무를 총괄하고,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연구 및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백해영
대외협력팀 업무를 총괄하며 후원회와 EAI사랑방, 사회과학대강좌, KF-EAI 코리아애프렌드십 등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서희정
외교안보연구팀의 국제컨퍼런스 및 라운드테이블의 기획과 운영, 중국연구패널을 비롯한 단기 연구팀의 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신영환
단행본의 편집 및 출판,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안현정
웹사이트의 기획, 개발 및 관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전자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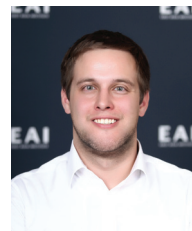
정원철
선거패널을 비롯한 국내외 여론조사 및 분석과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정한울
EAI 외교안보센터 및 여론분석센터의 부소장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은혜
지구넷21포럼, 라운드테이블, 전문가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회의와 사회과학대강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인턴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카일 케슬리
워킹페이퍼와 이슈브리핑 등 영문보고서의 편집과 미중관계시리즈의 기획 및 편찬을 담당하고 있다.



EAI.or.kr
EAI@eai.or.kr



Facebook.com/EAlorkr



Youtube.com/EAlorkr



Twitter.com/EAI_2002

